접착제처럼, 한 번 시작한 일은 야근으로 이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볼 때까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 하루를 미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행복을 위해 하루를 미룬 적은 없습니다. 학부 시절 때 과제가 주어졌으면 마감기한보다 최대 일주일 전에 완료하였고, 교육 기간 내내 당일 포트폴리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 아침 7시까지 등원하였으며, 마감시간까지 학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사 이후 주어진 프로젝트를 최대한 단기에 마치기 위해 접착제 같은 저의 잠재력을 뽐내겠습니다.

두더지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Node.js, React 등을 공부하며 더 넓은 분야로 파고드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입사 이후, 백엔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대 프론트엔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Node.js와 SQL에 대해 심층적인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교육 과정에서 Node.js를 다루었지만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에 게재하는 작업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이후에도 웹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Express.js를 활용하여 웹 혹은 API 서버를 구축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앱, AWS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MariaDB, MySQL 등을 이용한 검색 앱을 구현하여 백엔드 영역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개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디자인을 넘어, 프론트엔드를 넘어, 백엔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React로

일개미처럼,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로 일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협업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앞에 놓였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홀로 방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합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중재자로서, 참여율이 저조한 인원에 피드백과 조언을 던져주며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리더로서, 일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주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다.